



# 빛의사람들

2025. 12제 364 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정민하 울리오 신부 주소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02)921-5093  
FAX 02)921-7847 E-Mail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머리글 미리암 수녀 / 자비의 메르세다리아스 수녀회

## “보이지 않는 약속”

요즘 한 편의 소설을 통해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마음이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간직하고, 물려받고, 심지어 몸으로까지 표현하는지가 섬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종종 말이 아닌 몸짓과 침묵, 사랑하는 방식,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속에서 드러나곤 합니다.

소설 속에서 중심이 되는 상징은 ‘옷장’입니다. 주인공에게 그 옷장은 두려움과 죄책감, 비밀, 그리고 부모에 대한 충성심이 얽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갇혀 있었지요.

이 옷장은 우리가 모두 어린 시절에 맺었던 ‘보이지 않는 약속’, 즉 무의식적인 충성심을 상징합니다.

“엄마가 힘들었으니 내가 대신 아파할게.”

“아빠가 외로웠으니 내가 그 자리를 채울게.”

이런 마음들이 자라서 불안, 두려움, 분노, 죄책감, 무관심으로 변하고, 때로는 복종이나 완벽주의, ‘평화를 위해 모든 걸 참는 태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은 걸보기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잊고 평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납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깨어남’이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녀는 결국 옷장 앞에 서서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 안의 ‘어린 나’를 마주합니다.

그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이제 괜찮아. 밖으로 나와도 돼.”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과 화해하고, 과거의 고통을 내려놓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혹시 나도 여전히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꺼내줄 때일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이사 9,1)

성탄 축하드립니다.

##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10월 30일(목) 명동 대성전에서 '만델라학교 소년수 아이들을 위하여'라는 지향으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정민하 울리오 위원장 신부는 “넘어져도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영광이다”라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말을 본떠 2023년 3월 서울남부교도소에 '만델라 소년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라고 만델라 학교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제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하게 되었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 다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작년에 세례를 받고 출소한 한 학생의 고백을 이야기하며, “누군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 있어 주는 것, 누군가가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야말로 복음적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만델라 학교’의 소년들은 막막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꿈을 꾸는 용기와 사랑 안에서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배우고 있음을 기억하고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사형수를 위한 위령 미사



11월 3일(월) 의정부교구 광탄성당에서 사형수를 위한 위령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송정섭 시몬 부위원장 신부는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라는 복음에 대하여 “어쩌면 이곳에 묻힌 사형수들은 지금 살아 있는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러 오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들 역시도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도록 저 하늘 위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라며, 오늘 미사와 기도 중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사형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청했습니다. 위령 미사 후 연도를 바치고 무연고 사형수 25명이 잠들어 있는 광탄 나자렛 묘원으로 이동하여, 묘지를 정돈하고 합동 기도를 바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사형수 영혼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제26회 교정시설봉사자교육 파견 미사



9월 4일(목)~11월 13일(목) 매주 목요일 제26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15명이 수료한 이번 교육은 정민하 울리오 위원장 신부의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소개를 시작으로 다양한 강사님들의 교정사목 봉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진행되었고, 서울구치소 참관을 통하여 수용자들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파견 미사를 마지막으로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실현할 수 있는 봉사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선한 영향

김현수 마리아막달레나 / 서울구치소 최고수 봉사자

사제 서품 후 첫 부임지로 한강성당에 오신 김성은 신부님을 통해 교정사목 봉사자로 활동한 지도 거의 15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최고수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무서울 것 같은 저의 선입관과는 달리 너무나 환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저를 따뜻하게 반기며 인사하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최고수 한 분씩 오전 오후로 나뉘어 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해 간 음식을 함께 먹고, 미사의 복음 낭독이 끝나면 한주 어떻게 지냈는지, 복음이 어떻게 와 닿았는지 묻곤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한 주간 화나고 기분 나쁘고 마음 상했던 일들, 식물을 키우며 느끼는 감정들, 복음을 읽고 느꼈던 점과 이해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도 솔직하게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듣는 우리도 그들의 입장이 되어 함께 공감하고 기뻐하고 아파하며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특히, 저와 동갑내기인 최고수의 목상을 통해 하느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의 모습은 저에게도 큰 영향을 주어 앞으로 좀 더 잘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또 한 분은 유머와 에너지, 열정이 넘쳐흐르려 함께 있으면 웃음이 그치질 않습니다.

참 행복하고 그들과 함께여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순간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면 하느님도 참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간음하다 잡힌 여자”에서 간음한 여자를 잡아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고 그 여자에게는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만큼은 세상의 잣대로 사람들을 대하기보다 저도 알게 모르게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음을 고백하며 겸허하게 그리고 넓고 열린 마음으로 제 옆에 함께 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귀하게 고맙게 여기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서 하느님의 진짜 사랑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좀 더 밝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며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 前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이 성경 속 인물과 교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식지 지면을 채워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성경을 조금씩 읽으면서 가톨릭 교정 사목의 방향을 잡아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교정 사목을 단순히 교정시설에 가서 미사 봉헌하는 좁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아래 담겨 있는 죄와 벌, 용서와 화해에 대한 근본적 신학에 대한 고찰, 그리고 교정 사목에 참여하는 많은 분, 사목자와 봉사자, 직원들과 협력자들, 교정 공무원과 또한 후원자들에 대한 배려와 고민 없이 갇혀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올바른 사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 속 인물과 교정’을 쓸 때마다 제 부족함으로 인해 어렵고 힘들었지만, 또한 많은 점을 묵상하고, 발견할 수 있어서 또한 은총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구원역사와 하느님의 은총은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성경 속 인물을 묵상한 글들은 무척이나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속 인물들을 묵상한 많은 글이 아담, 카인, 아브라함, 요셉, 모세, 사울, 다윗 등과 같이 성경 속 “굵직한” 인물들 위주의 글들이 많습니다. 성경 속에서 많은 내용이 적혀있어서 그렇겠지요.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은 그들만을 통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름도 생소하고 행적도 잠깐 나타난 인물들, 때로는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느님은 당신의 희망과 사랑, 은총을 내려주심을 이 글을 써 내려가면서 느꼈습니다. 성경 속 상상의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혹은 성경 속 짧은 글 속 제 상상일 수는 있겠지만, 이 글을 쓰면서 더 풍부해지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정사목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희망을 갇힌 이들에게 전하는 참 소중한 사목이고, 또 사목자의 역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수용자는 그 사목자를 바라보고, 사목자의 이름만 기억할 수 있겠지만, 사목자 홀로 하는 사목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함께하는 동료 사제들과 수도자, 시설 안에서 티 안 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묵묵히 도와주는 교정 공무원과 신자 교정 공무원들, 음악 봉사자와 전례 봉사자분들, 뒤에서 챙겨주는 수도자와 직원들, 후원자들, 또 수용자분들 스스로 또한 복음의 선포자가 되어서 함께

해주었습니다. 어쩌면 성경 속 많은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서, 티 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히 살펴보아야 발견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하느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유명하고”, “위대하고”, “굵직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발견한 이후에는 성경에 짧게 언급된 사람들을 더 묵상해서 적어보려고 했습니다.

인물들만이 아닐 것입니다. 시간도 그러합니다. 우리 삶 속에 “굵직한” 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시간이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수능일, 입사 면접일, 결혼식 날, 재판 날. 이에 비해 그냥 일상인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운 날들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날들도 있습니다. 우리 수용자 형제자매님들에게는 이 간혀 있는 시간이 그러한 시간일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 일상의 시간, 그리고 버텨야 하는 시간, 화려하지 않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그런 시간 속에도, 그렇게 하느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듯한 이 시간 속에서도, 분명히 하느님의 은총과 희망이 있습니다. 수용자 형제자매님들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후원자분들, 신부님, 수녀님, 형제자매님들 모두 버텨야 하는 어려운 시간도 있고, 기쁘지도 않고, 무미건조한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 본인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남모르게 은총과 희망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 조용히 교정사목을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이 소중한 시간, 무미건조한 시간, 버티고 있는 시간 속에서도 하느님의 은총과 희망을 발견하시는 행복을 바라며,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 해의 끝에서 다시 바라보는 기쁨과 희망

김일호 미카엘

2025년의 마지막 달,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있습니다. 기쁨과희망은행에서 수용자와 출소자들을 만나고, 함께 걸어온 시간은 제게도 큰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창업을 시작해 용기를 낸 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버텨온 분, 그리고 아쉽게도 가게 문을 닫으며 다시 방향을 찾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흔들립니다. 폐업 소식을 전할 때는 안타깝고, 힘겹게 버티는 모습을 보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완납의 기쁨을 전하는 분들을 만날 때면, 그들의 눈빛 속에서 다시금 희망의 가능성을 봅니다. 삶이란 그렇게 오르막과 내리막, 성공과 실패가 섞여 있는 여정임을 실감합니다.

얼마 전 퇴근길에 겪은 작은 경험이 올해를 정리하는 저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신설동역에서 인천행 전철을 기다리던 중,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다는 마음에 서동탄행 전철을 탔습니다. 용산역에서 환승해서 급행 전철을 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급행 전철이 연착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처음 인천행을 그대로 탔다면 더 일찍 도착할 수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아쉬움과 짜증이 밀려왔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길을 선택한 건 나였고, 그 결과 또한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제 선택을 통해 삶에 대해 묵상할 기회를 얻은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다른 길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길이 예상치 못한 지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이거나 헛된 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다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마음으로 앞길을 계획하여도 그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잠언 16,9)

교정사목 안에서 만나는 많은 수용자와 출소자들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돌아가야 하는 길이 길어졌을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십니다. 교정사목 직원들은 신부님들의 곁에서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전하고 싶은 마음은 이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든, 어떤 길을 걷고 있든, 그 길 위에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며, 희망은 언제나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규정하지 않듯, 우리의 미래 또한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열려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새로운 선택을 통해 더 넓은 희망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비록 더딘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직원으로서, 그리고 같은 길의 동행자로서 신부님들과 기도하며 함께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기쁨과 희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정민하 율리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돈보스코입니다.  
신부님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고 계속하는 기도에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도 하느님께서 ‘이 죄인을 기억하시는 것일까?’  
의심이 많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신부님께서 주신 힘 덕분에, 그리고 수녀님 덕분에 힘 있게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묵주기도를 하고 있지만, 성모 찬송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성경칠은과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답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보스코 올림

※ 서울남부교도소 공장에서 생활하는 형제님이 정민하 신부님께 보내온 편지입니다.  
형제님에게 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2026년 1월 월례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2026년 1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 행사 알림

- 12월 1일(월) 월례 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12월 8일(월)~10일(수)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여주교도소 남사
- 12월 8일(월)~12일(금) 서울북부보호관찰소 4차 소년수강명령교육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 12월 14일(일)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 '감옥에 갇힌 이들의 희년' 미사 / 절두산
- 12월 17일(수)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5/10/16~11/14)

2025년 10월~11월에는 안금임 울리안나, 임소람 루시아, 정혜경, 김성천, 원인화 유스티나, 우수영, 오정숙 마리 아말달레나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김보미 마리스텔라, 김단, 순천왕도시락, 방명준, 허금숙 율리따, 배인식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2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입금자 명의로만 가능

기부금 영수증은 위원회 통장에 기록된  
**입금자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자 정보 알림

12월 31일(수)까지 발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위원회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우편 수령 별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 2026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확인 가능

### 홈페이지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 메일 상단에  
'후원확인'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 확인 경로 : 홈페이지 상단 '후원확인' 클릭 → 로그인 → 오른쪽 목록 '기부금영수증' 클릭



▶ 기부금영수증 조회



▶ 홈페이지  
기부금영수증 공지사항

귀한 사랑을 나누어주신 후원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 후원사업부 : 02)921-5094 / 010-3732-5093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에서 출력 가능

♥ 후원사업부 02)921-5094 / 교정사목 휴대전화 010-3732-5093 ♥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